

참나무시들음병의 방제 시험

(공동연구, 2013)

권건형, 박근호, 오준식, 지은미, 정윤미

요 약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친환경방제 약제의 혼증시험결과 살충율이 Turpentine 1ℓ 처리구에서 26.5%로 나타나 효과가 매우 저조하였으며 물리적 방제시험에서는 4방위로 쪼갠 것이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 서 론

참나무시들음병은 2004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발생이 확인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수종인 참나무의 중요한 병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지역별 피해유형이 다양하고 피해확산 정도가 빨라 우리를 더욱 당황케 만들고 있다.

이러한 참나무시들음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년 고사목과 피해가 심한 감염목을 대상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새로운 혼증약제 및 저독성 약제의 검증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방제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참나무시들음병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기초자료의 부족과 복잡한 산림생태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현재까지는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의 밀도를 줄이기 위한 별채훈증 방법, 침입예방 및 기피효과를 보기위한 살충제 수간살포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산림내에서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 같다.

참나무시들음병의 피해가 우리나라보다 20여년 일찍 나타난 일본의 경우도 여러 가지 방제법을 개발 적용하고 있으나, 피해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방제방법의 효과가 미비하거나, 방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의 피해와 유사한 듯 보이나 병원력이나 매개